

독서 PART1

<B16. 싸움의 기술과 무예 정신>

싸움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골치 아픈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이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싸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싸움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생존의 기술로, 강건한 신체와 치명적인 무기,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싸움의 기술은 민족의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 양식의 변화와 그 민족의 문화가 토착화되는 과정에 정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 싸움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 문화 속에 발전해 온 민족정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정착하면서 농경문화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을 달리며 신체를 단련해 온 기마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고대 무술의 특성으로도 나타나는데 달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동적인 신체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고대 국가는 군사 귀족이 지배 계급이었기 때문에 승무 정신이 이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국가가 안정되는 중세로 들어서면서 무력보다는 외교 전략을 통한 분쟁 해결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 무술, 무사에 대한 중요성도 약화되었다. 지배층이 군사 귀족에서 문인 귀족, 사대부로 바뀌면서 무사란 변란에 대비하는 것으로 그 소용이 한정되었다. 무력은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다는 ㉡ 이율배반적인 가치도 형성되었다.

조선 왕조를 지나면서 우리 무술은 유교 사상의 이념과 가치를 실천하는 철학적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무(武)는 포악한 것을 금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관리된 폭력으로서, '지과위무(止戈爲武)' 즉 병기를 그치게 하는 것이 무(武)라는, 평화를 위한 폭력으로 무술을 이해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무술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닦는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그들에게는 무술이 지배 계급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기술일 수 없고 도를 닦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 일본에서 무술은 무도(武道)라고 여겼다. 이것은 우리가 무술보다 무예(武藝)라는 말을 선호한 것과 비교하면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일본도 무술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무도는 객관적 우위가 금세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경지에 이른 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무도는 '지과위무'가 가능하지 않다.

우리 무술은 살상의 기술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 발전해 왔는데 이것은 한국의 무예 정신에 담겨 있다. 무예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느냐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겨루기는 상대를 타격하여 거꾸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힘과 기술을 얼마나 잘 보여 주느냐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재미를 위해 상대방을 계속 유인하는 태견의 발동작과 손동작도 바로 이러한 놀이화를 기초로 고안된 방식이었다. 민간에서 수박희(手搏戲)를 즐겼든가, 씨름 대회를 연다든가 활쏘기 대회를 여는 것 등은 모두 상대와 더불어 자신의 기술을 겨루는 것이다. 대결하되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무예 정신이고 무술이나 무도라는 말보다 무예라는 말을 택한 우리 조상이 무술에서 찾은 가치였던 것이다.

1. 민족의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싸움의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그 외형이 동일하다.(o,x)
2. 국가의 안정된 정도와 무술에 대한 중요도는 관련이 있다.(o,x)

3. 지과위무란,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무를 숭상하는 태도를 의미해.(o,x)
4. 한국의 무예 정신은 공연이 아닌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에 가깝다.(o,x)
5. 조선 왕조 때는 무술을 해롭고 포악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화를 위해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o,x)

<B17. 욕망의 모방과 은폐>

'이상적인 방랑의 기사'가 되고자 했던 ㉠ 돈키호테의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욕망의 대상과 욕망하는 주체를 고려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욕망이 대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면, 이는 대상이 욕망할 만한 것, 즉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기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욕망의 발원처가 대상이 아니라 욕망하는 주체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은 대상이 객관적으로 좋기 때문이 아니라, 주체가 가진 욕망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때 돈키호테의 욕망은 자신에게서 발원하는 것이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이 대상의 고유한 가치에서 발생한다거나 주체의 필요에서 발생한다는 욕망의 이원적 구도를 비판한다. 그는 욕망의 대상과 주체 외에 제3의 항이 존재한다고 보고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제3의 항은 주체의 욕망을 매개하는 다른 주체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욕망한다면, 이는 대상이 그 자체로 바랄 만한 것이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그 대상을 근원적으로 필요로 하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하여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이다. 즉 돈키호테의 욕망은 그의 이상형인 아마디스라는 전설적 기사를 매개로 생겨난다고 보았다. 돈키호테는 사랑과 기사도의 깃발 아래 싸우고 있는 자들은 모두 아마디스를 모방해야 하고, 그를 가장 잘 모방하는 방랑 기사는 기사도의 완벽한 단계에 가장 가까이 도달하게 되리라고 선언한다. 결국 돈키호테는 욕망의 대상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며, 대상을 선택한 것은 바로 아마디스이다.

한편 욕망의 모방은 인간을 사회화하고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물을 이상형으로 삼아 그의 욕망을 모방한다면, 어떤 도덕적 훈육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라르는, 욕망의 모방은 조화보다는 갈등을 낳기 쉽다고 보았다. 돈키호테의 경우는 욕망의 모델과 욕망하는 주체 사이의 거리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다. 그런데 욕망의 모델과 욕망하는 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깝거나 욕망의 대상이 공유 불가능한 것이라면, 모델과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모델은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욕망 실현의 장애물이 되기에, 선망은 증오와 결합하게 된다. 모델이자 경쟁자인 타인이 대상을 손에 넣는다는 상상은 대상의 가치를 드높이고 욕망을 한층 강렬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에 빠진 인간의 욕망이 돈키호테의 욕망보다 더 강렬하다.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평등의 가치가

[A] 확산되고 신분 차이가 사라지면서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모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은 모델의 욕망을 모방하면서도 자기 욕망의 독창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모방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은폐하고, 심지어 욕망 발생의 순서를 뒤바꾸고자 한다. 내가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상을 발견하였고, 먼저 대상을 욕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체의 자발성과 대상의 매력이라는 욕망의 이원적 구도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결국 욕망의 이원적 구도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의 모방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가운데 세워진 낭만적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1.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의 대상과 주체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욕망의 근원을 파악하는 방식 그 자체이다.(o,x)

2. (반론)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욕망하는 누군가의 욕망 또한 또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했을 가능성도 있기에 중개자의 욕망이 진정한 것인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겠군.(o,x)

3. 돈키호테의 욕망보다 질투하는 인간의 욕망이 더 큰 이유는 욕망의 모델과 욕망의 주체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o,X)

4. 흔히 등장하는 모방의 은폐 감소 전략은 자기 욕망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o,x)

<현대시>

B13. 김혜순, 「별을 굶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러가는 /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심장이 굶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며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대상의 삶에 대한 단면을 드러내고자 했다.
- ④ 의문형 어투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2. 위 시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하철 환승역'은 현대인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1연의 '붉은 흙가면'은 현대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의미한다.
- ③ '밀물'은 무미건조함의 상징으로 현대인의 생명력과 대비되는 시어이다.
- ④ 4연의 '불가마'는 현대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다.
- ⑤ 5연의 '붉은 흙 가면'은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도 보이는 현대인의 열정적 삶의 에너지를 함축한다.

B14.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췌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댄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한 느낌을 부여하는 대립적 시어들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 ③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④ 색채어 및 대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생생함을 더하고 있다.
- ⑤ 현실 비판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더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춘수의 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무의미시'의 시작 기법이나 형상화의 원리가 되는 묘사적이면서 기법적인 특성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 등장하는 풍경은 현실적 풍경이라기보다는 몽환적 풍경이다. 이러한 몽환적 풍경은 순수한 생명력 자체뿐만 아니라 쇠잔함의 생명력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편, 김춘수는 서술적 이미지를 옹호하고, 특정 관념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적 이미지를 부정하고 있다.

- ① 1행에 삼월에 눈이 오는 샤갈의 마을의 전체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2행부터 나오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의 새로 돋는 정맥이 떠는 것은 생명력을 드러내지만 바르르 떠는 것은 동시에 쇠잔해 가는 생명력을 드러낼 수도 있겠군.
- ③ 제목에서 삼월에 눈이 온다는 설정 역시 생명의 약동과 소멸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해.
- ④ 아낙네들이 아궁에 제일 아름다운 불을 지피는 것으로 불 때 소외된 계층이 화합을 이루는 민중의 생명력을 드러내는군.
- ⑤ 이 글 전반에 등장하는 상호 연관성이 떨어지는 소재들의 나열은 아마도 특정 관념을 배제하는 무의미시의 지향과 일치하는군.

<독서>

B16. 싸움의 기술과 정신

x, o, x, x, x

B17. 욕망의 모방과 은폐

x, o, x, x

<현대시>

B13. 5, 3

B14. 4, 4